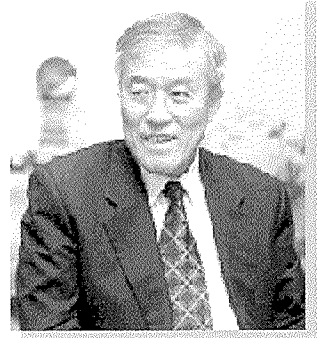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 소장

“2010년까지 한국의 원자력 수준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월) 취임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張仁順, 61) 소장은 “앞으로 미국등과 유대를 강화해 신개념의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각종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원자력 기술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장소장과 연합뉴스의 이은파 기자와의 일문일답한 내용이다.



* 연임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분야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원만히 수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3년간 연구소를 이끌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경영혁신을 하면서 노사간 마찰을 빚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영혁신 내용에는 정년 단축과 학자보조금 지급 및 퇴직금 누진제폐지 등이 담겨 있는 등 연구원에게 매우 불리하게 돼 있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노사간 협력이 잘돼 지금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큼니다.

*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이 줄어 고급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 원자력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반드시 핵공학과 출신만이 있는 게 아니며, 연구소에는 핵공학과 출신보다 기계공학이나 화공학과 출신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기관 운영 방안은?

- 미국의 원자력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데다 선진국들이 손을 잡고 미래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등 최근의 환경으로 미뤄 볼 때 앞으로 10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원자력 5대 강국(G-5)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등과 유대를 강화해 신개념의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 원자력 기술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IAEA가 추진 중인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방사선 이용 연구를 한층 강화하고 연구소의 대형 숙원사업인 양성자가속기 건설사업의 기반도

다져 나가겠습니다.

*** 연구소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 지난 3년간은 위에서 내려온 경영혁신을 위해 연구소 직원들이 인내와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주도가 된 내부로부터의 경영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구소에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등 열린 경영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고려대 출신인 장 소장은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소장과 한전 부설 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99년 4월부터 제14대 원자력연구소 소장으로 일해 왔으며, 지난달 23일 열린 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3년 임기의 소장으로 재선임 됐다.

“정위 방사선 치료”

“無고통 장점” 암, 수술로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노발리스 등 생소한 방사선 수술장비의 이름이 한꺼번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암치료라고 하면 수술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여러 가지 생소한 장비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면서 이들 장비가 ‘암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만 늘게 됐다. 일산 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김대용 박사와 함께 최근의 방사선 수술 동향과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기기의 각각의 특징 등에 대해 알아봤다.

♣ 각각의 기기들은 어떤 치료에 이용합니까?

이들은 모두 종양을 치료하기 위한 정위방사선수술 기기들입니다. 정위방사선수술이란 기존 방사선 치료가 5~8주 입원해 치료하던 것에 비해 고선량의 방사선을 정밀하게 종양에 조사, 통원 치료가 가능한 방법이지요.

♣ 암치료면 먼저 수술이 떠오르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암치료에서 수술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60% 정도, 나머지 20~30%는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치료라고 하면 외과수술로 종양을 절제하는 것을 연상하는